

언약 회복 (출애굽기 12:1-14)

오늘 우리가 잡은 말씀이 언약회복이다. 출애굽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다. 그 출애굽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주 그림처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언약의 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그 피를 바르는 날 백성들이 해방되었다. 그러면 너도 이 피를 계속 발라라. 그러면 너도 무조건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이다. 그날 흑암 세력,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다. 사단과 니가 싸울 필요 없다. 이 피를 계속 바르면 사단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이다. 이런 장면을 그림처럼 써냈다. 너무나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 해방되면 될 것이다. 사단 무너지면 된다. 답이 무엇인가? 그 언약의 피를 늘 바르면 된다. 어떻게 바르나? 고백하면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 보혈이면 나는 해방된다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사단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간단하다. 이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한다. 그런 것은 고치면 된다. 광야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들을 막을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다. 아무것도 막을수 없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내 언약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내 맘대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 맘대로 안 살아진다. 그런데 대부분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한다. 속은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이다. 태어난지 하루된 강아지는 호랑이가 와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 속은 것이다. 뭘 모르는 것이다. 인간이 그런 것이다. 육신적인것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흑암에서 건지기 위해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어린양의 피, 언약의 피다.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에는 왜 하필 피냐는 생각을 했다. 피라고 하면 일단 느낌이 안 좋다. 뭘 몰라서 그랬다. 생명 이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피는 먹으라고 만듦게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피를 쓸 곳이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 이 피를 쏟건데 이걸 먹으면 되겠어? 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언약을 회복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근본적인 것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언약이다. 그 언약을 회복하니까 해방된 것이다. 그냥 해방이 아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고 했다. 그걸로 나중에 성막 만들고 다 했다. 노예가 청색 홍색 실이 어디있겠는가? 성막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해준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이것 말고는 답을 주신 것이 없다.

1. 언약 회복

오늘 본문은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다. 어떻게 회복할것인가를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다 이야기 하였다. 백성들이 그걸 다 따라했더니 역사 일어났다. 우리도 이대로 하면 된다. 이대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된다.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양잡아야 하나? 그 양이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믿으면 되는 시대이다. 그냥 죽으신게 아니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언약이었다고 잡는 것이다. 그럼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줄려고 그날 저녁에 확실하게 사단을 꺾은 것이다. 3절에 보면 첫째날 열흘에 가족수대로 어린양을 취하라고 했다. 4절에는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인데, 그 고기의 양에 따라 식구가 적으면 옆집사람들과 같이 해도 된다고 했다. 이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 이튿날까지 남아 있는 것을 또 먹으면 안되고 불살라야 한다. 이걸 그냥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을 보고 우리 식구가 많다 싶으면 옆집과 같이 해도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피를 바르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양은 1년이 된 수컷이고 양이나 염소중에 취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것을 14일까지 4일동안 간직하다가 그날 해질 때 잡으라고 하였다. 양들가운데 한 마리를 선택하고 구분을 해 놔다.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나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 드릴 나의 언약이다. 그날 저녁에 아무거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이 양을 드리겠습니다하고 구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다. 그냥 생으로 먹지 말고,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태우시는 것을 의미한다. 10절에는 아침까지 남은 것은 절대 먹지 말고 태워 없애라고 했다. 이걸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으라고 했다. 너희들은 빨리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나가야 돼. 그말이다. 12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날 저녁에 내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신들도 다 박살을 낼 것이다. 조건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니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그 말이다. 내가 너의 대적을 박살 낼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박살을 낼 것이다. 니가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거 처런거 말할필요 없다. 이것을 안해서 그렇다. 초대생을 죽이는 것은 전부 내것이라는 말이다. 사실은 다 죽일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봐주는 것이다. 은혜이다. 13절에 이 언약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했다. 이 피를 바른 집은 이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될것이라고 했다. 니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으면 내가 다 안다. 그것이 내게 표적이 될거야. 무슨 표적이냐? 내가 너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유월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넘어간다는 것이다.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이다. 옛날 학교다닐 때 도망가는 것을 월담이라고 하지 않는가? 14절에는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하였다.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 양잡아야 한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결해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양잡으면 안된다. 그 말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내가 만들었다. 안식일은 내것이야, 나를 위해 주는것야. 그러므로 안식일에 나를 해아라. 너는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안식일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안식만 한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다. 15절에서 20절에는 양이 많아 읽지 않았지만 거기까지가 유월절이다. 핵심은 그날 저녁 언약의 피, 그것이 유월절이다. 시작한 그날부터 일주일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한다. 떡을 먹긴 먹어야 하는데 누룩 만들은 것,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걸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양을 구워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한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태워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 언약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무교병에 대한 말씀도 15-20절까지 써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유교병을 먹는 자는 백성중에 끊어질것이라고 하셨다.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해야 되는데, 무교병으로, 유교병, 즉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당연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18절에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일주일동안은 떡을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절에는 더 엄한 이야기가 나왔다. 무교병을 먹을 뿐 아니라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평소에는 누룩이 들어 있는 것을 먹어도 되니까 일단 그 일주일동안에는 집 바깥에 두든지 해라. 다시 말하면 완전신앙고백,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누룩 한 톨도 없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언약을 하, 다 약속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저주 받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20절에는 그 기간동안에 너희들은 어디에서든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 없이 무교병을 먹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피를 바르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라.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언약의 완성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참 감사하다. 양 잡으려면 힘들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 가끔 고등학교때 집에 가면 죽은 닭의 목을 치라고 시켰었다. 닭이 죽었다.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걸 칼 가지고 자르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고, 왜 그렇게 침이 흘렀나 모르겠다. 먹고 싶어 흐르게 아니라 기분이 영 이상했다. 이 양의 피는 목에다 칼을 찔러 나오는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참 눈물나는 것이다. 양 잡는 거 쉽지 않다. 잔치할 때 돼지 잡으면 목에 칼 찔러야 되는데 힘들다. 잘 안 죽는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 언약의 피를 만일 매일 고백하면 실질적인 삶도 회복이 된다. 이게 신자의 삶의 방식이다. 너는 이것을 계속 고백해라. 그러면 응답이 올거라는 말이다.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겠다.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어. 정복하게 되어 있다. 치유도 일어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이걸 하라는 것이다. 듣고만 있지 말고 하라는 것이다. 전도문도 열리고 제자도 붙여야 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전도자는 제자가 붙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 생기는 일을 적어냈다. 그걸 언약으로 잡고 매일 고백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피를 오늘도 잡고 고백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내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줄 믿습시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기도이다. 언약을 잡고 언약을 믿는다 하는 것이 언약기도이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그 기록을 한 것은 이렇다는 메시지이다. 증거이다. 우리는 이미 영혼은 모든 저주에서 믿는 순간에 해방되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없다고 하였다. 매일 그날 저녁의 언약의 피를 오늘도 고백한다고 잡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날 저녁에 내가 했던 똑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왜 그것을 일어나

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나, 이미 답을 줬다.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속는 것이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 하셨다. 사단의 모든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너진다는 것이다.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하나님 시간표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 모든 신들도 박살이 날것이다. 떠나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인생이 그 저주에서 유유히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노예된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없었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날 저녁에는 왕도 손들었다. 빨리 나가고, 가족도 얼마든지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집가서 내나라 하니 다 줬다. 겁나서 난리가 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 하셨다. 그거 다 받아서 너희 아이들 꾸미라고 했다. 장식하라고 했다. 이것이 언약이다. 너는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언약 잡은 기도이다. 근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와 함께 언약을 잡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이 언약을 고백하면 반드시 그날 저녁과 똑같은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줄 하나님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다. 이걸 계속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것 하나 뿐이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다. 회복되는 축복있기 바란다. 결론은 너는 이제 재앙 없다는 것이다.

2. 예배 회복

이렇게 언약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중간에 있어 몰라서 그렇지 먼 훗날에 보면 우리는 역사의 중간에 있다. 아직도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인간의 삶의 형태에 굉장한 영향을 이 코로나가 줬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대면예배이다. 이 부분에 대해 모든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우리는 주일 예배는 많이 회복되었는데 아직도 안 오는 분들이 있다. 그 이유는 있겠지만 대면예배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친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감각없이 수용하거나 따라갈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안된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가? 복음이 이렇게 설명된 적은 교회사에 없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인데, 렘넬트 운동인데 달라야 한다. 코로나에 놀려서 넘어지면 되겠는가?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주일예배는 상당히 회복되었는데 아직 미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잘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예배에는 중직자 2명 왔다. 여자 권사님 2명 왔다. 청년 남매 2명 왔다. 그리고 교역자하고 학사 렘넬트들 이렇게 왔다. 내가 성급한 격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넘어가면 된다. 그런데 괜히 성급해서 그렇게 아니라면 고쳐야 한다. 코로나에 물려서 비실비실하면 되겠는가? 내가 성급한것이면 좋겠지만 만일 아니라면 생각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또 하나의 세상의 풍조가 될 것이다. 내가 서울 교회들, 평신도로 있을때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서울교회들이 오후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 때는 오후예배가 없고, 오후에는 렘넬트 예배고 저녁예배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후 2시에 저녁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몇몇이 모여서 교회에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 말을 많이 했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때는 교회의 윤리는 살아있었다. 교회의 문제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은 별로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하나의 오후예배가 될 수 있다. 참된 복음을 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생각해보라. 안오면 힘이 없기 때문에 허브러시게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시지를 받는데에는 문제 없다. 성경공부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고 온라인이 더 좋다. 선교에는 오히려 더 도움된다. 간다는 것이 한정적인데, 이것은 누구나 들어와 말씀 받을수 있으니가 선교에는 더 좋다. 그렇지만 집에서 TV를 보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겠는가? 딱 방안에 들어가 혼자 무릎 꿇고 드리면 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회라면 그것이 화면보고 되겠는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뺑뺑이다. 은혜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출가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내가 한국에 있을때에는 집사였는데, 미국교회 이야기 하는데 TV를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지금으로 치면 은행계좌로 넣고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 헌금도 사실은 솔직한 말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기도하면서 넣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하면 헌금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자꾸만 전통적인 모습에서 깨져가는 것이다. 렘넬트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시대의 풍조에 거슬러 가는 것이 기독교 문화이다. 왜냐하면 시대의 풍조는 그 뒤에 대부분이 사단이 들어가 있다. 무조건 거슬러 가야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얼굴을 나타내야 하는 로컬 사역에는 굉장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영향을 받지 않을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한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라. 어떤 상황이었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땠는가?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 풍조에 역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 니가 진짜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답을 줘서 증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교회가 멀어서 금요일에 배 못오시면 교회 옆으로 이사오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장 때문에는 이사를 가지 않는가? 학군 때문에 돈 많이 들어도 이사하지 않는가? 그러면 교회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러면 이게 잘 가는것인가 거꾸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는가? 류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성막, 회막, 장막이 나온다.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지 장막이 중심이 되면 되겠는가? 성막이 회막이 안되는데 성막은 뭐하러 짓는가?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야기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는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한다. 직장에 우리의 응답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직장 옆에 이사하도 하나님 응답 안하면 끝이다. 쓸데 없이 일만 많이 하는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이야. 너는 일년에 응답 한번 받고 일년 경계를 끝내라는 것이다. 내게는 100년 응답도 있고 1000년 응답도 있다. 왜 계속 이야기 해도 언약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하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나? 이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 바로 옆에 집이 있고 일도 잘하고 언약도 확실하고 예배도 확실하면 그것에 좋은 것이다. 교회 옆으로 이사 오면 좋다. 평일에 한번씩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교회 모이는 날 아니어도 와서 한번씩 하나님 부르면 눈물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집에서 하면 되지? 맞다. 집에서 해도 된다. 그런데 비교 한번 해봐라. 어떻게 더 나은가? 일 때문에 교회 옆에, 5번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을 것이다. 교회에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가보라. 응답 한번 받으면 일년 내내 일 안해도 된다. 마태복음 6장은 니가 왜 이리 바쁘냐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시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의식을 말할 것이다.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자동으로 행위에 대한 말까지 가야 결론이 나니까 이야기 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웠는가? 교회를 살리라는 것이다. 이름만 중직자이다. 렘넬트 운동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교회 하라는 것이다. 생각해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하는가? 나는 이걸 다는 못해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몇점짜리 중직자인가?

오래 전부터 류목사님 메시지 들은 사람은 한번씩 들었을 것이다. 어떤 동네에 배운것도 없고 그래서 동네에서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먹고 사는 분이 있었다. 우리가 어릴때도 동네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 이집에서 뭐 해주려면 가서 해주고, 사례를 좀 해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동네에 유지가 되는 아이들에게는 말도 잘 못 낮췄다. 그런 분이었던 것 같다. 아무 배운 것이 없었다. 지식이 없었다. 그러면 교회와서 메시지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게 뭐냐면 무조건 예배란 예배는 안 빠졌다. 이거 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었다. 이렇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의사, 하나는 한명은 장군되었고 하나는 판사가 되었다. 그 동네에서 완전히 거지 취급받던 사람이 그 동네에서 무시 못할 사람이 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는 들어도 모르지만 무조건 감니다. 축복해주세요. 하고 간 것이다. 인생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나? 온 동네에 무시당하고 돈도 많이 못 받고 그런 인생, 한이 많힌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계속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거기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주 기도가 나이스하다. 이 사람은 한이 많힌 것이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이다. 여하간 말은 하나까 기도는 했겠지. 예배 하나가지고 완전히 역전시킨 것이다.

얼마전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분도 70대이고 부모님들은 계시면 90대인데 다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는 사모였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이야기 하셨다고 한다. 이제는 옛날처럼 기도가 즐기차가 안나온다고 하였다. 너무나 당연하다. 뇌의 활동이 줄어드니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리고 뇌의 활동이 중요하게 그게 잘 안되면 은혜도 그렇게 잘 안된다. 우리도 누구든지 어느날 이런 상황에 도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도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젊을 때는 공짜같았던 기도가 잘 안되는 것이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장 찍는 것이다. 이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서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도장 찍는 것이다. 예배는 안 빠져. 예배 오는 것을 가라는 사람이 있겠는가?

어떤 목사는, 어떤 할머니가 말씀 듣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개를 끄덕이니까 거기 은혜 받아서 열심히 메시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못 듣는다는 것을 감추려고 그냥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그냥 보면 완전히 아멘이다. 목사님은 거기에 은혜 받아서 막 이런 것이다. 목사는 이렇게 바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신다.

예배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약이다. 언약 없으면 안된다. 언약이 회복되면 이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기 바란다. 간단하다. 이미 기록된 것을 잡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복된다. 그것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란다.